

섬진강 동서통합지대 창조경제 신성장 거점으로

국토부 기본 계획 확정 ... 2020년까지 8660억 투입

여수와 광양을 해양관광지대로 육성하는 등 섬진강을 기준으로 호남과 영남 일대 지역에 신성장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동서통합지대'의 기본 계획이 확정됐다.

이 기본 계획에 따라 광양만권에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고흥의 항공우주산업이 지원된다. 또 광주~순천 복선전철화, 보성~임성 철도건설, 한려대교 건설 등 대형 SOC도 기본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최근 제3차 국토정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중 8대 핵심정책에 담긴 사안이다.

국토부는 우선 광양·여수·순천시·구례군·순천시와 경남 하동군·남해군·진주시·사천시 등 8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설정했다. 또 항공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 사천시와 공동 지원을 위해 고

여수·광양 해양관광
광양만권 미래 소재
고흥 항공우주산업
광주~순천 복선화

흥군을 추가 포함해 우주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동서연계형 문화·관광지대 조성 ▲동서연계형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동서 간 연계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소통과 화합의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동서통합지대의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 등 5개 분야 43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에 2020년까지 약 8660억원(추정치)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수 엑스포항에 크루즈 접안시설을 보강하고 마리아항을 조성하고, 민자를 유치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려수도길, 이순신 해전길 등 해상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남해 재일동포 귀향마을, 순천 생태관광공원 조성 등 내·외국인을 겨냥한 체류형 관광지도 만들기로 했다.

신성장 산업벨트는 해양플랜트, 항공우주 등 지역에 이미 모여 있는 기간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면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전남의 철강 산업, 항만 물류와 경남의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융합해 해양플랜트 클러스터를 만들고, 진주·사천·고흥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또 광양만권에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도 육성해 대일본 무역 적자 해소, 산업 고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문화·관광 분야도 지원된다. 섬진강, 광양만 등 동서 간 공유지역을 문화·관광 중심지대로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기반을 구축한다.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동서 케이불라 설치, 뱃길 복원 등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이 개발되고 섬진강 양안의 연결도 추진된다.

섬진강 양안에 지리산과 남도의 전통문화에술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회랑지대'가 조성돼 지역의 문화관광 거점 노릇을 하게 된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SOC도 확충된다. 여수~남해를 잇는 한려대교 건설과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구 남

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재개통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된다.

하지만 이 기본구상에는 총 예산 8660억원 중 2750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있고, 2000억원도 민자로 유치해야 하는 점 등 구체적 예산 마련 방안이 빠져있다. 또 한려대교 건설에만 1조400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임을 위한...” 5·18기념곡 즉각 지정을

강운태 시장 촉구

강운태 광주시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즉각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이 해를 넘기고 말았다”면서 “박승춘 보훈처장은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5·18기념곡 지정, 2014년 5·18 전까지 결론’이라는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5·18 기념곡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해 열린 3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태극기를 들고 화답해 주셨고,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결의안까지 채택했다”며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5월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된 바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데 이미 30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불리고 있는 5월의 노래로, 정부에서 5월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급 공무원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

내년부터 7급에도 적용 검토

올해부터 지방대 출신들의 5급 공무원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균형인사 지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이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5급 공채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은 현행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아진다.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현행 합격

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 경우 2012년 기준 5급 공채 인원 중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200여 명의 약 8%였던 지방인재 규모가 1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안행부는 내다봤다.

안행부는 2015년부터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행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올린다. /연합뉴스

“정상화 개혁, 경제·민생 역량 집중”

朴대통령 신년사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정상화 개혁과 경제 활성화, 안보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새해, 새로운 변화의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어렵게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安危를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날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 및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등 대통령 소속위원회 위원장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 등과 함께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박 대통령은 방명록에 “청마의 해, 우리나라에 도약의 기운이 가득하고 국민이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북관계 개선 강조... 南 호응 촉구

北 김정은 신년사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남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남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됐으며 화해와 단합에 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갈 것이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북한은 연초에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등을 열어 올해 대남정책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오전 9시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대남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북침책전쟁을 벌여 사소한 우발적 군사적 충돌로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행 靑 대변인 사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31일 전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의 대변인직을 마치고 잠시 쉼표를 찍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금까지 모신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 국민행복 외엔 모두를 번뇌로 생각하는 분이였다”며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불철주야 노력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 지난 기간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행복했다”고 회고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월24일 청와대 공동대변인으로 인선돼 활동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선관위 상임위원
전선일씨 취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1급)에 전선일(57) 전 경복도선관위 상임위원이 1일 취임했다.

전선일 전선일광주시 선관위 상임위원은 지난 2007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 득표요인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선거연수원 시민교육과장, 제주도, 전북도 및 인천시 선관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전 상임위원은 “기본에 충실한 완벽한 선거관리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 1분

등기완료, 공실없음월수익 420만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용 1억)

전대용봉지구모아APT코너

신축 4층 룠 19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전대정문 원룸

룸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정문원룸

룸 18개 월수익 580 매가 7억

수완지구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매매(85평) 3억2천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주) 대신건설개발 ☎010-6670-9800

경매전문

경매 투자 하실 분!

(공동투자가능)

(상가, APT, 원룸, 토지, 근생, 기타)

권리분석·입찰

매매·임대·자금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 해드립니다.

◎경매 직원 구함◎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주)대신경매 ☎062-527-7600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 지 4,900㎡
건 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할용지라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 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있)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

해남 관리지역
(낮은 야산)

금 매

문내면 석교리

5300평

평당 3만원

폭6m 현황도로 있음

목포 생활권

해남기업도시 인접

화원면 조선배후

단지 가능

밭, 과수원

주택, 축사

사료공장

태양광등

모두 가능

문의전화(지주)

010-7979-8257